

2017년 5월 17일, 구좌읍 덕천리 김차순씨 댁, 이현정 조사
김차순(여, 1943년생, 구좌읍 덕천리)

- 줄거리: 제보자가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깜깜한 밤이 되어 돌아오는데, 그 시각에 불이 켜질리 없는 물고래 간에서 비춰지는 불을 목격한다. 그때서야 제보자는 이 불이 도깨비인 것을 알아차리고 도깨비불이 실제 존재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.

[조사자] 덕천에는 저 도체비 나온덴 안 협니까?

[제보자] 옛날, 옛날 4·3사건 때.

[조사자] 예, 얘기 헤줍서.

[제보자] 나가 그거는 알지. 옛날 우리가 두린 때. 밤이라도 놀레 가지. 놀레엔 허는 건 밤이 나가는 것골아 놀레엔 허여. 나가그넨에 이제 저 목 곁에 놀아뎅기다가, 놀다가 들어올 적에 밤에. 옛날 이제 그 때는 보리 쌀 보리밥만 먹는 시절이라. 게믄 보리 쌀을 우리가 이 동넷 보리 깎으는 디가 엊으니까 송당을 지엉 자주 나들주. 경 헤연 깎아당 그걸 보리밥만 헹 먹곡. 또 물그래가 잇어 옛날. 이 큰 돌로 영 돌아가는 거. 저 부름부께? 추룩 돌아가는 것이 잇이민. 그거 밀리멍 소리 허멍 빙빙 돌민 그 보리. 이제 물 적져그네 그래 노믄 껍덕을 벗으면은 이제 그 것을 헉끔 무른 듯 헤야 이제는 ?래에 검피거나.

아, 이젠 놀단 저 목 곁에 간에 우리 서너이가 간에 놀단에 오단 보난. 그 물그래 엔 헌 거 잇어낫주게 저디. 우리 동네도 두 밧디가 물그래가 잇언. 영영 둘리민 그 보리 영 똥글락허게시리 노민 이게 영. 저 껍덕 벗겨지곡. 그 오단 보니까 그디는 아무런 그 시간에 그디 앗아그네 불 비출 수가 엊지. 그런데 딱 보니까 그, 물그래 엔 헌 디 딱 불이 켜진 걸 본 거라. 나가. 딱 훈 번 봐어.

아. 나가 그때는

“아, 요 것이 도체비로구나.”

나는 이 사실은 도체비다 도체비다 몰랐는데 아, 이 현실을 보니까

“아, 요 거는 도체비엿구나!”

그거를 그때 느꼈어. 훈 번 딱 봐.

- 핵심어 : 덕천, 도체비, 밤, 놀레, 물그래, 불, 도깨비, 도깨비불